

안전,  
작은 욕심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차가운 날씨, 아침 일찍부터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길을 나선다. 비가 온 뒤라 초겨울 하늘은 온통 질푸른 색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충남 천안시 외국인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LDI(LCD Drive IC)제품 Package 전문반도체 회사 스테코, 이곳의 환경안전보건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천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STECO** 이상천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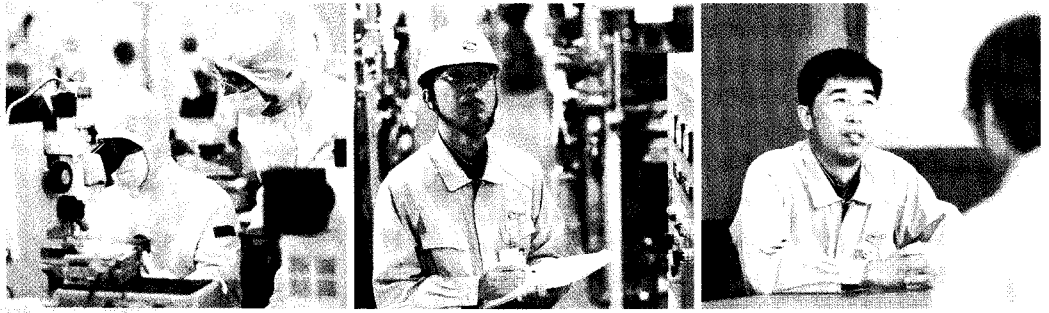
### 안전? 물음표로 시작한 일

내년이면 불혹을 바라보는 이상천 안전관리자는 천안에서 태어나 줄 곳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학을 졸업하던 1996년 8월, 스테코 주식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원래 금속공학을 전공한 그가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된 것은 학창시절 산업안전기사와 폐기물처리기사를 취득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안전업무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떤 운명이 그를 안전으로 이끌었을까?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 본다. 입사 초 설립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던 신생회사에서 환경, 안전, 보건 업무를 혼자서 전담하게 된 신입사원 이상천 안전관리자, 현장 경험이 전무한 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안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음표를 갖고 하나하나 기준을 마련해 갔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0여명의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으로 환경안전파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 안전,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감격적인 일

13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기둥을 세우고 담을 쌓고 지붕을 얹어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매진해 온 기억은 아직도 그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그가 세운 하나의 목표, 바로 무재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를 많은 근로자와 동료들이 도와주었고, 그런 도움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주관한 '사업장 산업보건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가해 내로라하는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금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은 그 동안 쌓아 온 노력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또한 지금껏 시행해 온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들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안전업무에 매진해 온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법, 몇 년 전 가깝게 지내던 근로자 2명이 교통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



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산업재해는 아니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로 큰 실의와 충격을 받았고,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에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사고는 언제나 사소한 원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그 사소한 원인에도 항상 대비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던 만큼 교통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뜻내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안전교육에 꼭 교통안전 과정을 삽입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안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헌신

평소 현장 점검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둘러본다.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연령이 낮고 여성근로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감수성과 관심이 낮아 자칫 휴먼에러에 의한 재해발생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생산라인에는 소형 산업용로봇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다. 지금까지 재해발생 사례는 없지만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근로자들에게 애차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사고는 누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정이나 상황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만큼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으면 더욱 조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히려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여기서 그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와 다른 시각에서 안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런 위험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평소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지속적인 연구와 자기개발, 꾸준한 노력, 이 3가지가 무재해 사업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스테코 주식회사는 지난 10월 제8회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환경안전파트가 올린 또 다른 큰 성과, 이러한 성과가 있기 까지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스테코 주식회사의 전 임직원들의 환경안전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그는 안전관리자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PS : 많은 동료 안전관리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오늘도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계속 노력하는 안전관련법규의 개정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셨듯이 우리나라 산업현장 초일선에서 우리 소중한 근로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과수공임에 자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파트 왼쪽부터 조경신 사원, 김수련 보건관리자, 최세욱 사원, 이상천 파트장